칼 럼

장 기 채 주 필

임을 위한…5월의 노래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까지도 5월이면 우리들의 마음을 처절하게 움켜쥔다.

그것은 5·18이 생각나기 때문일 것이다.

피투성이의 아비규환이 뇌리를 스친다. 주먹밥이 생각나고, 헌혈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줄을 서던 그런 모습도 떠오른다.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던 80년 5월 그날이 39년을 맞았다.

5월 그리고 18일 이라는 숫자는 해마다 다시 오지만 광주의 5·18은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그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한다. 그 넋을 위로해야 한다. 더 나아가 '5월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다짐하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 또 '5월의 노래'는 해마다 5월이 오면 빛고을을 물들였다. 이제 다시 5월이다. 5월은 '5월의 노래'가 있다.

광주의 한 단칸방에서 카세트 녹음기로 만들어진 노래 테이프는 수없이 복제돼 방방곡곡으로 전해졌다. 광주 대학살의 패배감과 자괴감, 하지만 새날에의 희망을 버릴 수 없던 산자들은 숨죽이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에서 힘을 얻고, 서로 어깨를 걸었다. 노래는 노동현장에서, 산업현장에서, 거리에서, 대학가에서, 새날을 향한 싸움의 현장에서 '깨어나서 외치는 함성'으로 되살아났다.

'그 해'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간 영령을 기억하고,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는 맹세의 노래였다.

80년대 민주화 장정의 초석을 이룬 5·18민주항쟁의 역사와 정신이 오롯이 깃들어 있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어쨌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참석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33주년 기념식에서 인천오페라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자 태극기를 들었지만 따라 부르지는 않았다.

돌이켜 보면 5·18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중앙·지방 일간신문 기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의 의로운 항거였다고 증언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4·19혁명,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그 꽃을 피웠다.

지금 우리 사회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5월 광주에서의 의로운 희생을 바탕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관련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를 만큼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작이다.

행여 5·18희생자 유족 등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가는 관련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월의 푸름이 영원하듯 광주정신은 결코 퇴색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더욱 푸르게 빛날 것이다.

이제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은 9일 남았다. 그런데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5월 영령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온 부모, 노부부 등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묘역 곳곳을 둘러보고 민주의 문 앞에 들어선 참배객들은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숙연한 표정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당당히 참석해 그 가치와 정신을 기리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숨쉴 수 있게 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 세상을 위해 독재에 분연히 맞서 앞서서 나간 민주열사들, 대통령이 시민과 함께 5월의 노래를 부를 때 진정어린 '국민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그날의 오월이다. 함께하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고마움으로 노래를 부른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社 說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해야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시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자동차 기술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연구에 연구를 계속한 끝에 실용화 단계가 머지않은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에 걸맞게 사회 인프라 역시 구축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찰이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교통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니 다행으로 여겨진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자율주행 관련 입법·정책 동향 등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에서는 ▲ 법·제도 개선 ▲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 안전관리체계 확립 ▲ 협업과 소통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를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또 세부추진 과제에는 ▲ 자율주행 시스템의 법규 준수능력 검증 체계 개발 ▲ 신호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보 제공 기술 개발 ▲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3년간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교통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경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東	동녘	동
西	서녘	서
二	두	이
京	서울	경

東 西 二 京

▷뜻: 동과 서에 두 서울이 있으니, 동경(東京)은 낙양(洛陽)이고 서경(西京)은 장안(長安)임.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 집 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8
광 고 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건조한 날씨 산불예방 생활화 해야

최근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 소식이 전해졌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은 2~5월에 집중 발생하며, 올해 2월 중순까지 108건의 산불과 약 51㏊의 산림이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사망자나 부상자, 호흡기 질환자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산림과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산림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초래, 대기오염 발생이라는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가 동반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산자의 실화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시 라이터나 버너 같은 인화 물질은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도 금해야 한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불 가해자는 산림 보호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지자체 및 산림청은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산림 인접 문화재·전통사찰의 안전점검,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 산림 인접 지역 인화물질 제거 지원 등의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조성우 / 무안소방서 진압반장